

뉴욕에 와본 사람만 뉴욕을 안다

깨달음과 사회적 실천 사이 외유내강 대담

올해 초 동화사에서 열린 진제 스님과 폴 니터 교수(유니온 신학대)의 종교간 대화에 이어 9월 16일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에서도 종교 평화를 주제로 두 사람의 진지한 대화가 성사됐다. 이날 대화는 폴 니터 교수가 진제 스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님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폴 니터 : 스님께서 올해 초 내게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 나의 참 자아는 무엇이냐'라는 화두를 주셨다. 나는 이것을 기독교식으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바꿨다. 그리고 이 화두를 갖고 내가 속한 사회 공동체 속에서 수행해왔다. 이에 대해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비(사랑)가 크다고 생각한다. 올해 1월에 스님에게 배운 것 중 가장 큰 것은 이 세상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해서 평화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소중한 가르침을 나는 항상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꾼다고 그것이 반드시 세상을 바꾸는 것과 연결이 될까? 우리의 욕심은 구조적 욕심에서도 비롯된다. 개인적인 변화가 있을 때 사회적 욕심과 탐욕을 바꾸는 것이 반드시 연관되는지 의문이다.

진제 스님 : 산승이 이번에 뉴욕에서 법회를 한 것은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였다.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교를 뛰어 넘어 개개인의 마음을 닦아서 마음의 고향을 이뤄야 한다. 여기에는 자아가 없다. 너와 내가 없어 욕심도 없다. 온 인류와 세계가 평등하다. 이런 평등한 사상을 갖고 있으면 투쟁도 없다. 온 인류가 다 평등하기 때문에 욕심을 갖지 않게 된다.

개개인이 세계평화를 갈구할진대 일상 생활에서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 나인가' 하는 화두를 의식하고 수행하면 깨달음을 얻고 온 세상이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된다. 이런 좋은 수행법을 행하지 않고서 세계평화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 그러나 내 말을 정확히 받아들이고 허송세월 마시길 바란다. 세계가 둘이 아닌데 무슨 허상이 있겠는가.

진제 스님 : 수행을 하면 세상과 산사의 생활이 둘이 아니다. 대도를 깨달으면 모든 중생의 세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진리의 낙을 누리는 법이다. 꿈을 깨면 세상사 모든 것이 꿈인 것을 알게 된다.

폴 니터 : 우리가 깨닫고, 지혜로워져서 그 지혜 때문에 자비로워지는 방법도 있지만, 자비행을 하거나 누구로부터 받다보면 그 자리로부터 깨달음에 도달하고 지혜로워진다고 배웠다. 특히 나의 큰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는 이 사회에서 억눌리고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왕따 당한 사람들에 대한



진제 스님(사진 좌)과 폴 니터 교수(사진 우)가 종교간 대화 후 합장의 예를 취하고 있다.

진제 스님, 폴 니터 교수 대담 통해 평화 공존 위한 선 수행 중요성 공유

폴 교수, "실천적 행동 고민했다" 진제 스님, '참나의 깨달음' 강조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보인다.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진제 스님과 승가의 스님들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고 싶다.

진제 스님 : 도를 닦는 수행자들은 정치에 초연해야 한다. 세상일은 항상 대립각을 세운다. 지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비에 말리면 일생을 낭비하게 된다. 시비에서 벗어나 도를 닦는 것이 근본 취지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희생하며 선행하는 것은 근본이다. 그 가운데서 진리를 증득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하루하루를 보내면 일생을 후회 없이 살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폴 니터 : 스님 말씀에 동의한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좋은 일을 하겠다고 열심히 나타나다가 오히려 일을 망치는 경우를 많이 봤다. 그러나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고통이 있는데 언제까지 행동에 앞서 깨달음을 우선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다.

진제 스님 : 한편으로는 자아를 닦는 수행, 다른 한편으로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수행에 성과 열을 다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겸해야 부끄럽지는 삶을 살 수 있다. 두 가지를 행하는데 있어, 근본 초점은 자아와 진리를 깨닫는데 뒤편에 있다. 그러면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한 언덕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폴 니터 : 제가 잘못된 질문을 하나 하겠다. 제가 기독교에서도 못된 질문 자주해서 마녀다, 이단이다 하며 욕을 먹는다. 스님께서는 깨달음을 위해 눈 밝은 스승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나도 스승의 중요성은 잘 안다. 그런데 부처님은 스승이 없지 않았는가?

또, 스님께서는 40명을 지도했는데 한 명도 인가를 안 했다고 하셨다. 만일 내가 박사학위 학생인데 교수가 학위를 안 주면 그 교수 밑에서 공부하기 무서울 것 같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실 때, '네 안의 등불을 배워라. 나를 신격화하지 말라. 나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인가 제도가 꼭 필요한 것인가?

진제 스님 : 인가제도는 진리의 바른 문을 여는 법칙이다. 세계적인 도시하면 뉴욕이다. 정치, 경제, 문화가 으뜸인 도시인데 와본 사람은 뉴욕의 전모를 알 수 없다. 그와 똑같은 이치다. 진리의 고향에 이르러서도, 바른 스승에게 인증을 받지 않으면 눈 어두운 장님과 같아서 금은동을 가리지 못 한다. 가리는 것은 눈 밝은 스승의 역할이다. 뉴욕에 안 와본 사람은 뉴욕을 모른다. 같은 비유다.

뉴욕=박기범 기자

스님들이 바라본 '대화'

성문 스님 "보살도 강화해야"
원담 스님 "수행자 가치 인정해야"



성문 스님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종교간 대화' 이후에는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과 동화사 금당선원 수좌 원담 스님이 각자의 소감을 발표했다.

성문 스님은 폴 니터 교수가 진제 스님께 집중적으로 질의한 '깨달음과 실천의 우선순위'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스님은 전적으로 선 수행을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전제하면서도 선불교가 대승불교의 보살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문 스님은 "선불교도 대승불교가 바탕이고, 대승불교는 보살도의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선불교는 깨달음을 중시하다보니 현실 참여가 좀 부족하다. 한 진중공공과 강정마을 사태를 불교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불교도 이런 분들과 함께 해야한다"고 말했다.

성문 스님은 새가 좌우 날개로 날고, 수레가 두 바퀴로 굴러가듯이 한국 불교가 선 수행의 맑은 에너지와 사회 참여라는 또 다른 바퀴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담 스님은 진제 스님과 폴 니터 교수의 대화를 '부드럽고 강한 충돌'로 규정했다. 진제 스님은 일생을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하며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

다. 반면 폴 니터 교수는 또 다른 접근법으로 수행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스님은 "선방이나 수도원에서 일생을 한 길을 선택해서 가는 존재들을 어느 정도 용납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그들 모두가 사회에 참여하고 정치개혁과 빈민 구제에 나서라고 할 것인가 남겨둘 것인가의 문제다. 이것은 트래블러스의 하나다"라며 수행자들의 가치에 대해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스님은 또 폴 니터 교수에게 티베트 스승이 있으면서도 한국 선불교를 찾은 이유와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어 한국 선불교를 찾은 것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폴 니터 교수는 "내게 예수님이라는 스승이 있어도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을 수 있듯이 티베트 스승이 있어도 진제 스님을 스승으로 모실 수 있다. 간화선 때문에 한국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고, 화두의 힘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뉴욕=박기범 기자

"깨달음의 세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청중들 평소 궁금증 문자
진제 스님 "깨달아라" 강조

시종일관 진제 스님과 폴 니터 교수의 대화를 진지하게 들던 파란 눈의 청중들은 깊은 고민에서 나오는 질문을 두 사람에게 던졌다. 청중들의 질문 속에는 종교와 삶에 대한 그들의 진지한 고민이 묻어 있었다.

한 청중은 마음의 평화에 대한 질문을 꺼냈다. 그는 "종교간 대화를 통해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는데, 거리를 두고 바라 볼 때만 가능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유니온 신학대에 재학 중이라고 밝힌 한 여학생은 "두 분 이야기를 들으니 깨달음을 얻으면 평화로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슬픔과 눈물에는 가치가 없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다른 청중은 좀 더 인간적인 수행법과 깨달음을 얻으면 보이는 완전한 세계가 어디에 존재하는 것인지 물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 진제 스님은 여러 질문에 대해 깨달음을 얻어 참나를 찾으면 모든 의문이 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먹지 않으면 모르는 법이다. 우리가 냉수를 마실 때도 마셔봐야 물이 맑고 담담한 것을 알 수 있다"며 깨달음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스님은 또 "지도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꾸준히 여여하게 정진하면 유종의 미를 거둬서 모든 성인과 같이 동고동락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폴 니터 교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폴 니터 교수는 "배고프면 먹고 슬프면 울라는 것이 선의 가르침이다. 그러면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슬픔 속에 평화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고 생각할 때 현실과 우리 사이의 분리가 사라진다.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하거나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을 해야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박기범 기자



찬 덕 불 교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 이제는 범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 안산 월강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 흥은사



운장대 인등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왕2리 261-6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람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98원/1kwh

아름다운등



팔각점등등가등



만월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만월등



종 등



LED 전구